

2차전지株 ‘깜짝반등’ 기대감에… “리스크 커 투자 신중해야”

LG엔솔·에코프로 등 급락하다 이날 일제 상승에 수익회복 기대 전문가 “상승했던 만큼 빠지는 중상반기 같은 주가흐름은 없을 것” 일부 공매도 시행에 하락 의견도



지난달 개인 투자자들의 맹목적인 투자에도 급락세를 보이던 2차전지주가 돌연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상반기와 같은 주가 상승세를 보이기는 어렵다고 평가 중이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급락세를 보이던 2차전지주가 반등 기미를 보였다. 지난달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LG에너지솔루션,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을 가장 많이 순매수하면서 2차전지주에 대한 선호를 유지했다. 하지만 2차전지주 대부분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공든 탑이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하지만 이날은 2차전지주가 강세를 보이며 개미들의 우려를 덜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개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들였던 LG에너지솔루션(4204억원)은 10월에만 주가가 19.09% 가량 떨어졌다. 이외에도 포스코홀딩스

(2673억원), 삼성SDI(2439억원), 포스코퓨처엠(2310억원) 등이 상위 5개 종목에 이름을 올렸지만 모두 부진한 성적을 냈다. 3개 종목 역시 10월에만 주가가 23.08%, 16.89%, 34.21%씩 하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1월에 들어서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며 부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날 ▲LG에너지솔루션(3.71%) ▲포스코홀딩스(6.21%) ▲삼성SDI(5.99%) ▲포스코퓨처엠(11.13%) 등 모두 올랐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손해도 만만치 않았다. 개미들은 지난달에 에코프로비엠을 2757억원 가량 사들이면서 압도적인 선호를 보여줬다. 순매수 2위였던 하나마이크론 664억원과는 약 2000억원 차이는 규모다. 개미들의 맹목적인 신뢰에도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는 25.45% 떨어지면서 미끄러움을 탔었지만, 2일에는 15.06% 오르면서 강세 흐름에 탑

승했다. 9월 말 증가와 비교해서는 낮은 주가지만 급등세에 따른 기대감이 오르는 모습이다.

다만 장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제도나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2차전지가 성장 구간에 있는 것은 맞지만 상반기에 성장 기대치가 과도하게 반영됐던 만큼 눈을 낮춰야 하는데, 최근 주가조정이 그 과정 중 하나로 보인다”며 “오늘 주가가 폭등하기는 했지만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던 만큼 빠지는 느낌이 있고, 주가가 급등할 만한 새로운 이슈가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전지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큰 국면이고,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상반기까지 상승 모멘텀이 애매하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자라면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올해 상반기와 같은 주가 흐름은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2차전지주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달 30일 기준 공매도 잔고금액 1위는 1조3685억원인 LG에너지솔루션이 었기 때문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에코프로의 공매도 잔고금액이 1조749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에코프로비엠(1조483억원), 엘앤에프(3367억원)이 이름을 올렸다. 세 종목 모두 지난달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공매도 세력이 이차전지주를 공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금지를 언급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진행됐던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의원은 “공매도를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아예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며 “불법 공매도 관련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개인이 받는 차별을 최소화하거나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의문이 가지 않는 조치를 한 뒤에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배터리 산업 국산화율 확대 기여… 연평균 85% 성장”

IPO 간담회

에코프로머터리얼즈

국내 유일 전구체 대량생산 업체 4년내 연 생산능력 4배 이상 확대 17일 상장… 1447.6만 주 전량신주

공모가 고평가 논란에 더해 에코프로 그룹주를 비롯한 이차전지주의 주가가 연일 조정을 받고 있어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둔 에코프로머터리얼즈가 흥행에 성공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병훈 에코프로머터리얼즈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간담회에서 “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차전지 업종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등 시장 상황이 악화돼 당혹스럽지만, 에코프로머터리얼즈가 준비하고 있는 미래 비전을 고려하면

지금의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설명했다.

2017년 설립된 에코프로머터리얼즈는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이차전지의 핵심소재인 전구체를 대량 생산한다. 전구체는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전 단계의 원료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인 만큼 배터리 원가의 약 20~30%를 차지한다.

특히 국내에서 사용되는 전구체의 95%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코프로머터리얼즈의 상장이 국내 배터리 산업의 국산화율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에코프로머터리얼즈는 전구체 생산능력을 현재 연간 5만 톤에서 2027년 연간 21만톤까지 늘릴 계획이다.

에코프로머터리얼즈의 실적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매출은 2018년 569억원에서 지난해 6652억원으로 연 평균 84.9% 성장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매출

5241억원, 영업이익 155억원을 거뒀다.

에코프로머터리얼즈는 개선된 주행 거리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높아지며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진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하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기차 수요는 지난해 1530만대에서 2027년 4100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같은 기간 양극재 수요는 141만8000톤에서 526만300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코프로머터리얼즈는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경쟁사 대비 기술력 우위를 유지하고 황산화공정(RMP) 기반 원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이 같은 전기차 시대에 대비한다는 전략이다.

에코프로머터리얼즈는 오는 3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8~9일 일반 청약을 거쳐 이달 17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이번 상장에서 전량 신주 방

식으로 총 1447만6000주를 공모한다. 주당 희망 공모금액은 3만6200~4만6000원이며, 예상 시가총액은 2조5700억~3조2700억원 수준이다. 이번 공모로 마련될 투자 재원은 최대 6369억4400만원으로 이중 대부분은 추가공장 등 설비투자 및 원재료 매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병훈 대표는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전구체 업체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경쟁사와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미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차세대 전구체에 대한 개발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에코프로머터리얼즈가 하반기 마지막 대어인 만큼 상장 흥행 여부에 따라 향후 기업공개(IPO) 시장의 분위기가 좌우될 것으로 보여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증권가는 에코프로머터리얼즈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전혜영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에코프로머터리얼즈는 국내 이차전지 전



김병훈 에코프로머터리얼즈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 간담회에서 상장 후 성장 전략을 밝히고 있다. /원관희 기자

구체 업체 중 CAPA(생산설비) 증설 및 생산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업체”라며 “2023년 5만 톤의 생산능력을 2027년 21만톤 규모로 확대함에 따라 25년부터 증설분이 매출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배터리 밸류체인에서 확실히 배제되면 국내 전구체 업체들의 투자 매력도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

KB증권, ESG평가 지배구조 4년연속 A등급

이해관계자 소통·윤리경영 등 체계화된 ESG 실행조직 성과

KB증권은 2023년 한국ESG기준원(KCGS)의 ESG 평가 지배구조(G) 분야에서 4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KCGS는 공신력 있는 ESG 평가기관으로서, 매해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부문으로 나눠 국내 기업의 경영활동을 평가하고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KB증권과 같은 비상장 금융회사의 경우 지배구조(G)부문에서만 평가를 받는다.

KB증권은 ‘ESG+I(Investment, 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경영, 사회적 책임 활동

을 통한 동반성장 실현, ESG 생태계 참여 및 대외 기관과의 연계와 협업 등 ESG 분야별로 고르게 실행력을 높여가며 ESG 선도 금융회사로 자리잡고자 노력해 왔다. 특히 지배구조 분야에서 체계화된 ESG 실행 조직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 소통,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체계 확립, 리더십과 임직원 커뮤니케이션의 조화, 내부통제와 윤리 경영도 계속 강화하고 있다.

한국ESG기준원의 ESG등급은 자본 시장 참여자들이 기업의 ESG 관련 발생 가능 위험 수준을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하게 하고, 투자자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KB증권은 한국ESG기준원의 개정된 새로운 평가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KB증권

한 결과, 4년 연속 A등급을 얻었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증권업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

한편, KB금융그룹은 금융회사로서는 유일하게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에서 4년 연속 전 부문에서 A+ 등급을 획득하며 ‘ESG경영 선도 금융그룹’임을 입증했다. 이에 KB증권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경영을 실천할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

파운트, 고객 예수금 ETF에 자동 투자

KB증권과 ‘자율주행 서비스’ 시작

로보어드바이저 전문기업 파운트는 KB증권과 투자처를 찾지 못한 고객의 예수금을 자동으로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해 주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파운트의 자율주행 서비스는 별도의 앱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로보어드바이저 투자가 가능하다. 로보어드바이저가 자동으로 글로벌 분산 투자를 진행한다.

파운트의 자율주행 서비스는 KB증권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인 ‘마블(M-able)’과 ‘마블미니(M-able mini)’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원관희 기자

투자자가 보유한 KB증권 계좌 가운데 일임 계약이 돼 있지 않은 주식거래 가능 계좌만 해당한다.

투자상품은 파운트의 자회사 파운트 투자자문의 대표적 투자일임 상품인 글로벌 ETF를 대상으로 한다.

김영빈 파운트 대표는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일임 서비스와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계좌에 잠시 쉬고 있는 투자금을 로보어드바이저가 알아서 굴러줌으로써 글로벌 자산배분을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라며 “파운트의 글로벌 자산배분 및 운용 노하우를 제공, 편리하고 효율적인 투자방식으로 자리 잡도록 서비스 안정화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